

Geopolitical Monitor

이란, 핵 협정 위반 시사

이란, 핵 협정에 따라 합의된 우라늄 비축 한도를 초과할 것 (CNN 19.6.17)

- 이란 원자력기구 대변인은 10일 안에 핵 협정에서 설정한 우라늄 비축 한도를 초과할 것이라고 밝힘
- 여기에 더해 우라늄 농축 농도도 핵 협정의 한도인 3.67%를 초과한 3.7%의 우라늄 농축 농도를 실행할 것이라고 밝힘
- 이란은 제재가 지속되면 핵 협정의 일부를 지키지 않는다고 발언. 다만, 유럽 국가들이 약속을 지키면 핵 협정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고 밝힘
- 유럽은 이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미국의 제재에 따른 자국 기업의 불이익을 고려해 현재 이란과의 거래를 하지 않고 있음
- 이란 의회 원자력위원회의 모즈타바 졸누르 위원장은 60일 안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핵 확산금지조약(NPT) 탈퇴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발언
- 한편,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트럼프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고, 이란의 행동은 보다 커진 국제적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발언

시진핑, 14년 만에 북한 방문 예정(WSJ, SCMP, 19.6.17)

- 중국 대외연락부, 시진핑이 6/20~21일 북한을 국빈 방문할 것이라고 밝힘
- 소식통에 따르면 시진핑의 이번 방북은 북-중 수교 70주년을 기념함과 동시에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네 차례 방중한 것에 대한 답례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달
- 또한 시진핑의 방북은 갑자기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미-중 무역분쟁과 홍콩 시위 등 최근 중국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덧붙임
- 자오퉁 중국 베이징 카네기상화 연구원에 따르면 시진핑의 방북은 미국에게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

월버 로스, G20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음 (Bloomberg 19.6.17)

- 월버 로스는 G20 정상회의에서 가장 많이 나올 것은 무역 협상 재개를 위한 내용일 것이라고 발언
- G20 정상회의는 2,500페이지에 달하는 합의문을 협상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발언
- 또한 미국과 중국은 중국에는 합의할 것이라고 밝힘.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(무역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) 트럼프는 보류했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힘
- 아직 트럼프와 시진핑의 회담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회담이 성사된다면 무역 협상에 대한 새로운 기본 규칙과 세부적인 회담이 언제 재개될 지에 대한 일정이 논의 될 것이라고 발언
- 지난 주 므누신도 G20 정상회의에서 미-중 무역협상과 관련한 내용에 진전이 없으면 트럼프가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힘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